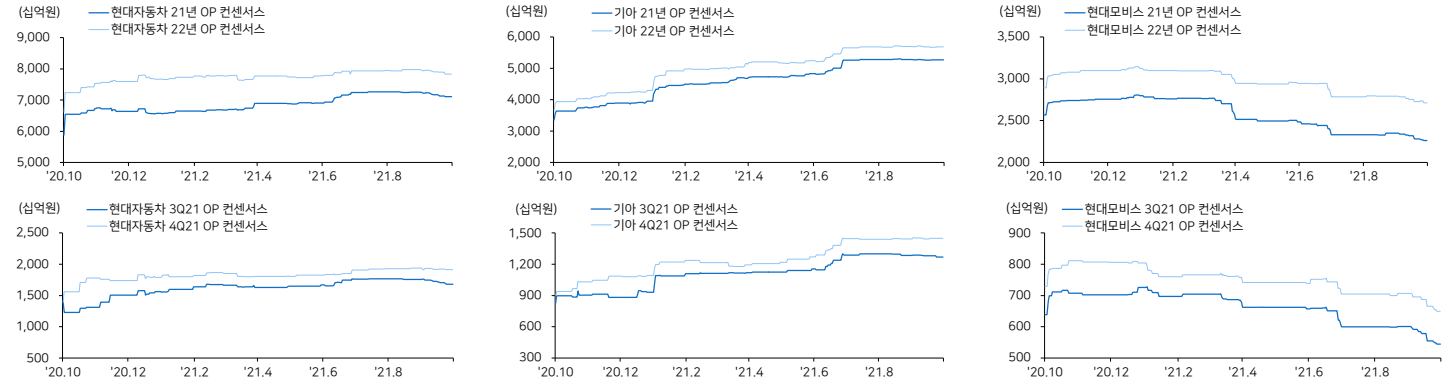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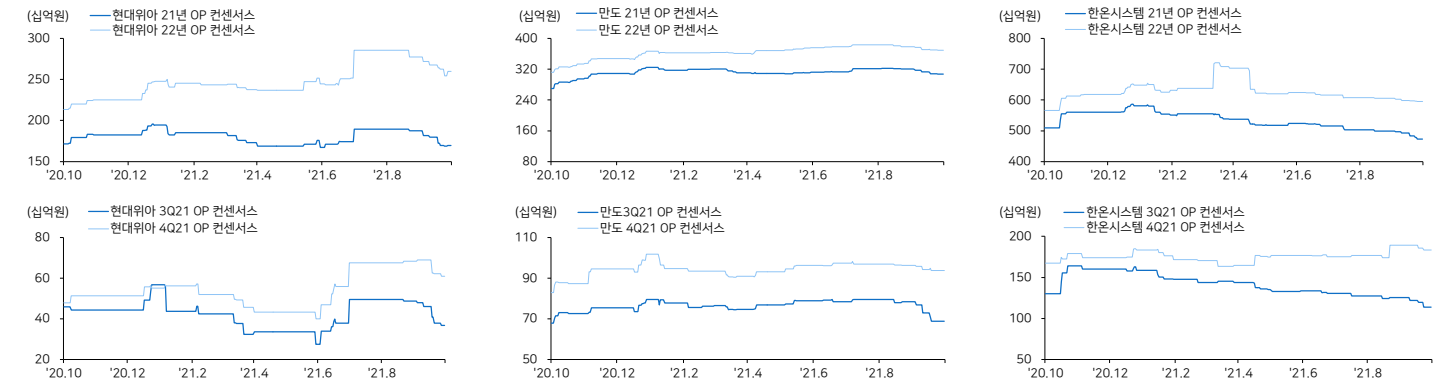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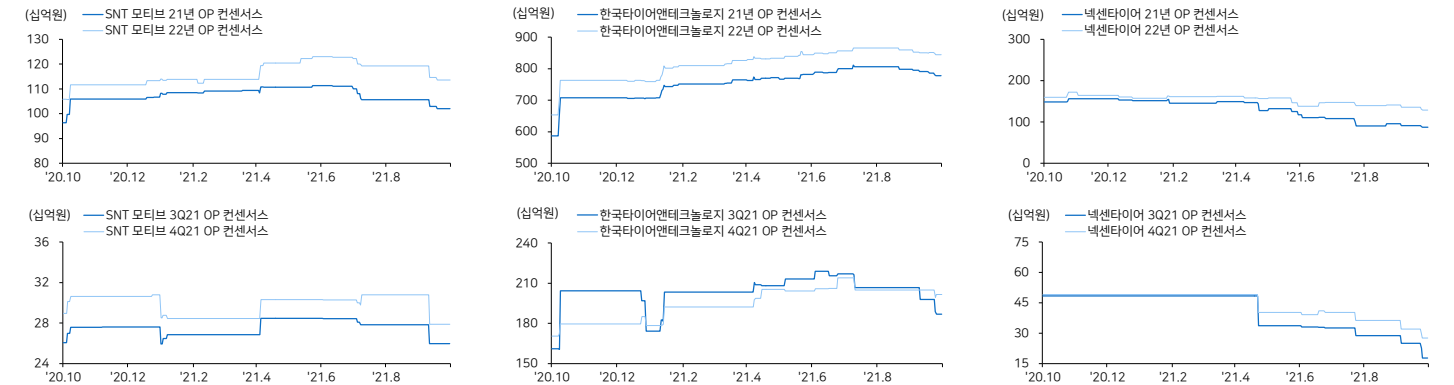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반도체 부족에도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수출 ↑ ...20만대 돌파 (연합뉴스)

현대차·기아가 올해 1~8월 수출한 친환경차는 총 22만7천768대로, yoy 35.6% 증가함. 반도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싼타페/소렌토/투싼 등의 PHEV/HEV 차량의 해외판매 본격화로 수출량 증가를 견인. 지난해 COVID19 영향의 기저효과도 반영.
<https://bit.ly/3vNWUDW>

정 의선 인도네시아 방문, 대통령과 현대차 전기차사업 협력 논의 (비즈니스포스트)

정 의선 현대차 회장은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J엑스포에 참석하여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현대차 전기차사업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 현대차는 내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공장을 완공하여 양산할 계획 중.
<https://bit.ly/3nnWb0X>

"행복주차 쉬워진다" ...현대모비스, 90도 회전바퀴 'e코너 모듈' 개발 (이데일리)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의 조향·제동·회전·구동 시스템을 바퀴 하나에 집약시킨 신기술인 'e-코너 모듈 선행개발'에 성공. 신뢰성 검증과 양산성 검토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양산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
<https://bit.ly/3vNXrpq>

Canada says proposed U.S. EV tax credit could harm sector, mulls possible challenge (Reuters)

캐나다는 미국 노조 생산 차량에 자동차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 보조금 정책 제안이, 북미 자동차 산업에 해가 될 수 있으며 WTO 무역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무역액은 연평균 천억 달러 수준으로 걸림돌이 있음.
<https://reut.rs/2Znn9Fe>

'반도체 숨통'...현대차, 4분기 생산량 최대로 끌어올린다 (아시아투데이)

마이크론사의 말레이시아산 반도체는 이달 말부터 국내 반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차는 추가적인 생산저해 요인이 없는 한 특근을 통해 최대한 생산량을 늘린다는 방침. 현대차 노사는 공강별 특근 계획을 발표.
<https://bit.ly/3jye1TY>

가상 생산공장으로 ESG까지 잡은 현대차 (한국경제)

디지털트윈은 가상공간에 현실세계의 자동차와 생산장치 같은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하고 얻은 데이터를 개발과 생산 과정에 활용하는 기술. 현대차는 신기술 연구소에 이를 도입해 시제차 제조비를 절감할 계획.
<https://bit.ly/2XJzBY>

5년간 전기차 113만대 보급시 에너지 수입액 2조원 절감 (연합뉴스)

그린뉴딜 정책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가 보급되면 내연기관차 113만대가 운행할 때보다 에너지 수입량이 약 40% 줄어든 것이라 전망이 제시됨. 이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 절감은 2조 원에 달해, 에너지 안보 개선 효과가 기대됨.
<https://bit.ly/3GjJ5MT>

중 베이징,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전용 도로 개방...포니 지성·바이두 첫 주행 (THE GURU)

중국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주행 테스트 전용 도로를 개방함. 포니 지성과 바이두가 중국 정부로부터 1차 테스트 승인을 받음. 일반 운전자들도 사용하는 도로이며, 테스트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하여 테스트 진행.
<https://bit.ly/3m9jGTq>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